

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

<하나님을 사랑하라>

1/20(주일) 설교 내용

이사야 39:1-8

1. 오늘 말씀에서,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?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혹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? 히스기야와 같이,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.

히스기야는 자신을 방문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, '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' 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. 그가 자랑한 것은, 보물창고와 무기고, 그리고 궁중의 각종 소유물들이었습니다. 즉, '나의 능력'을 드러내는데 그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.

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배경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(막강한 바벨론이,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자신들을 대등하게 대우해 주었기에, 히스기야는 기분이 좋아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상황)

이런 히스기야의 모습들 속에서, 혹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나요? 실제의 내 모습보다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부수적인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했던 내 모습.. 이 부분은 '진솔한 나눔'이 필요합니다. 목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꺼이 먼저 오픈한다면 원활한 나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2. 이제는,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.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,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군가에게 자랑한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?

목원들 가운데, '하나님을 자랑한다'는 의미가 낯선 분도 계실 것입니다.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?

우리 자녀가 용돈을 모아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을 합니다. 참 대견하죠.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.

'선물'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, '선물을 준비한 자녀의 마음'을 자랑하는 것이죠.

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,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..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..

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.

지금까지의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이끄신 것, 미국에서의 정착, 성광교회에서의 행복한 신앙생활.. 무엇이든 좋습니다.

그 속에서 '내'가 아닌, '하나님'이 자랑되어지고, 드러난다면 말이지 ☺

3.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바울은 '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질 수 있다'고 했습니다. 2019 년, 우리는 어떻게 거룩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?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

설교의 마지막은 '경건' 과 '거룩'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.

사도 바울은 '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' (디모데전서 4:5) 말씀했는데,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위한 이 두가지 실천(말씀과 기도)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..

2019년에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하도록 해주세요.

예를 들어, 새벽예배에 더 힘쓰고 싶다. 성경일독을 목표로 실천중이다.

매일 큐티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. 등..

만약 이에 대한 결단이 없는 분이 있다면, '말씀과 기도'는 경건한 삶을 위한 기본 요소이기에 지금이라도 결단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